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연중 제 12 주일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서 377면 (C해)
제1독서 : 즈 가 12,10—11
제2독서 : 갈 라 3,26—29
복 음 : 루 가 9,18—24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루가 9, 20).

□ 강 론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신앙인

유 종 환 신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고유한 길이 있다. 자기만의 이 고유한 길을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확인하고, 온 힘을 다해 자기의 고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인생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다. 이 고유한 삶은 하느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남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남의 처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

촛불이 자기의 몸을 남김없이 불사르면서 밝은 빛을 쏟아내듯이, 신앙인도 촛불처럼 자기의 모두를 이웃을 위해 송두리째 불사를 때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오늘 성서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의 전 생애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철두철미하게 촛불처럼 불사르셨고, 온 인류에게 사랑의 극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의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화해와 일치의 제물로 바치셨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모두를 봉헌할 때 완성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님께 거저받은 모든 선물들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 줄 때에, 사도 바오로 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신앙인은 신앙의 안경을 낀 사람이다. 신앙의 안경을 끼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 이웃을 자기 기준에 맞추고 살아가므로 모든 것이 맘에 들지 못한다. 왜 저 사람은 이기적일까? 왜 이 세상은 이토록 타락되었는가? 모든 잘못된 것이 자기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다. 그러나 신앙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다보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인다. 비록 이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진정으로 어루만져 줄줄 알고, 이웃이 자기를 비난하여도 초연히 웃어 넘기는 여유를 갖게 된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물이 흘러 넘친다.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른다. 그 사람 주위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몰려온다. 그의 친구들도 그에게서 흘러 넘치는 사랑의 물결에 흠뻑 적시어 한없이 행복해진다. 기쁨은 기쁨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아 평화 넘치는 세계가 건설된다. 주님께서는 바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건설하는 신앙인들 사이에 언제나 기꺼이 내려오신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주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로소이다" (금마 천주교회)

소리 생명 운동

—반공해, 반핵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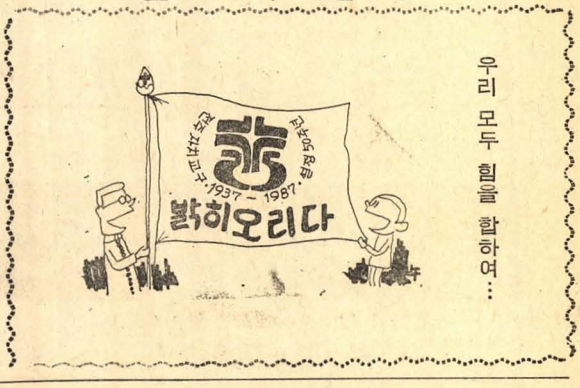
지난 6월 5일은 열네번째 맞는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뜻있는 성직자(사제·목사)·수도자·변호사·교수·의사·민권운동가·종교인들이 한국 공해문제 연구소를 만들어, 민간운동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며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하느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해주신 자연환경을 하느님의 뜻대로 잘 보호 관리함으로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해 가자"(마태오16, 26)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12월 한 순간에 2천5백여 사망자를 낸 인도 보팔시의 개스사고나, 지난 4월 10만여 방사능 피해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미 고리나 월성지역에서 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기 2000년까지 18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전 1km당 건설단가는 약 120만원이고 발전단가는 35원인데, 화력발전소의 건설단가는 50만원 미만이고 발전단가는 30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20~30년 후에 수명이 다만 원전을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건설비용이나 비슷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 하겠다.

정치적으로 미·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핵문제들이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갖가지 공해가 우리의 생명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 쓰레기를 줍는 정도의 자연보호 운동으로는 울산이나 온산의 공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자연보호운동은 근본적으로 인간생명 보호운동이어야 한다. (한공연 제86—39호 발췌 인용)

숲정이 산책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북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

고 마 태 오 신부

북한 선교란 무엇인가? 북한 선교에 대한 임무를 맡고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생각해 봤읍니다. 그것은 북한 선교란 말마디가 뜻하는대로 북한에 인간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여 북한 주민들을 주님의 제자되게 하는 것입니다(마태28장 18절~20절)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북한땅에 교회를 세워 북한의 동족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북한 선교가 웅장한 성전을 세우거나 또는 주님의 생애 따위를 전하는 신학적—지적 선전사업이 아닌 그분의 생활과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인류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며, 또 우리 인간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주는 뚜렷한 표식인 동시에 오늘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구속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땅에 세울 교회는 건물로 표현되는 성전이 아니라 인간구원을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조화일치된 이 십자가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이러한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며 북한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반성해 봅시다.

1. 십자가를 통해 보는 성부의 사랑

원죄와 함께 불행과 멸망을 숙명적 유산처럼 받아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당신의 외아들을 속죄물로 보내시어 대신 죽게 하신 성부의 사랑은 분명 "내 탓이다"로 표현되는 사랑의 이니시아티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느님의 원수였던 인간은 그분과 화해하게 되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로마 5장 6절~11절). 이처럼 사랑은 분열을 일치로, 또 불화를 화해로 이끌어 줍니다.

북한 선교에 임하는 우리들은 조국분단의 현실앞에 진심으로 고민하며 각자 민음안에 "내 탓이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적 분열이란 이 비극에 양심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가. 북한도 우리 조국임을 잊지말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갑시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앞서 겨레 사랑으로 북한의 동족을 사랑합시다.

나. 과거에 있었던 미움과 원한을 씻고, 더 나아가 불행했던 일들을 잊읍시다. 사랑은 용서하며, 또한 잊어주는 행위입니다(예레미아 31장 34절).

다. 북한에 대한 경멸감이나 우월감을 버리고 민족적 이해속에 형제적 사랑을 실천합시다.

2. 십자가를 통해 보는 성자의 사랑

사랑의 이니시아티브이며, 또한 분열을 일치로 또 불화를 화해로 이끄는 "내 탓이다"의 사랑은 결국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어줄 수 밖에 없읍니다.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장 13절) 하신 예수께서는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땅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또 어떻게 희생하고 버려야 할까요?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 우선 북한에 대해 비방하는 언동을 삼갑시다. 사랑은 남을 비난하는 행위가 아닐 뿐더러 남의 마음에 상처주는 행위는 더욱 아닙니다.

나. 북한에 대한 과장되고 그릇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립시다. 선입견과 편견은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인 동시에 일치를 방해하고 화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 조국통일과 민족적 화해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 일체를 버립시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십자가를 통해 보는 성령의 사랑

복음성경은 성령을 가르켜 주님을 대신하는 다른 협조자(요한 14장 16절)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협조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은 십자가의 형태가 보여주는 "더하기 표"와 같은 것으로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화시켜 주고 있읍니다. 그럼 성령께선 북한 선교를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또 불가능을 가능화시켜 주고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 성령은 북한 선교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주십니다. 북한 선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인 동시에 그분께서 주관하시기에 희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위한 능동적인 협력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 성령은 북한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사랑은 악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고린도전서 1장 6절)으로써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 성령은 북한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그리스도(로마 8장 34절)를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마태 5장 44절).

언젠가는 우리가 북한 땅에서 실천—완성해야 할 북한 선교는 건물로 표현되는 교회도 아니며, 또한 신학적 지식의 단순한 전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그러한 사랑이 조화—집약된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인 만큼 진정 이러한 자세로 북한 선교에 임해야 되겠읍니다.

☆ 대입 종합반 · 단과반
강사진이 가장 강한 학원! (냉난방시설 완비)
全州 英才學院
조흥은행 앞 개 강 : 7월 1일
☎ 82—3537

김안과의원(이리)
(부설 : 콘택트렌즈)
원장 김 끄르넬리오
조 모니카
전화 이리 54—8600
이리 제일은행 앞
서독안경원 2층

母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외과 내)

교 구 소 식

1. **재정참사회** : 23일(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성체분배권 교육** : 25일(수)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타
3. **주일학교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 일시—7월 5일~8일, 장소—화산 나바위성당
   교회비—5개시 12,000원 · 그외지역—10,000원(교재강의, 영성특강, 체육대회)
4. **86년 여름방학 교리교재 발간(아동용 · 교사용)** : 신청—28일까지 교구청 홍보국으로 (⑤0041~3), ※ 10번 11번은 전교연 공문 86—5~6호 참조
5. **성소자 모임** : 22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타. 대상—중·고·대·일반 성소자
6. **M·E 소개모임** : 22일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타 M·E 사무실
7. **6월 전주 시민강좌** : "한반도와 핵, 전쟁, 평화" 강사—이영희
   일시—24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중앙천주교회
8. **전주교구 성령쇄신대회 평가회 개최** : 일시—25일 오후 7시~9시
   장소—효자동성당 교육관, 대상—봉사자 전원 참석 바람
9. **6월중 은혜의밤 및 철야기도회** : 27일(금) 오후 11시, 효자동 천주교회
10. **레지오간부 교육** : 28일(토) 오후 2시~29일(일) 오후 4시, 장소—광주 명상의집
    회비—18,000원, 출발시간—28일 오후 2시 전동성당, 대상—pr간부 및 간부후보자
11. **전주교구출신 서울 신자모임(50주년 기념)** : 25일(수) 오후 7시
    장소—서울 혜화동성당, 미사—박정일 주교님
    ※ 서울에 있는 교우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많은 교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12. **전화신설** : 원평천주교회 수녀원 43—4236

◎ **축! 영명** : **성 요한세자(24일)** 김봉희 · 왕수해 · 한기호 · 김요안 신부님 축하합니다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51 : 1~9 복음 : 루가 8 : 16~18

♣ 잠 깐 !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을…

지난 5월에 교구 선교사로 파견되어 이제 7월중 임지인 페루로 떠날 계획인 세분의 신부님(정승현 신부, 김윤섭 신부, 방의성 신부) 중, 막내 방의성 신부님이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나 다행으로 큰 사고는 아니어서 이제는 다시 원기회복하여 열심히 준비중이지만…, 아무래도 우리들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의식을 다시 깨우쳐주는 이 소식은 선교사를 위한 특별헌금날의 우리들의 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믿음의 고향을 찾는 형제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재경 신자들은 믿음의 고향인 전주교구의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중략)… 1987년 50주년 기념일까지 재경 모든 신자들은 매월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바칠 것이며…」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적극 협조하겠단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다.

어쩌다 고향을 떠나 서울이라는 타향에 살면서 그래도 고향의 일을 잊지못해 교구설정 50주년이라는 큰 일에 기도와 협력을 꼭 함께 나누겠다고 두 손 맞잡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모임은, 서울에 사는 전주교구 출신 교우들의 모임으로 지난 5월21일 첫 모임에서 회칙과 50주년 기념준비위원 · 임원진을 선출한바 있다. 이제 교구장 박주교님을 모시고 6월의 월례회를 개최한다고 준비위원회 위원장 강근호 형제가 소식을 전해온것. 좋은 모임으로, 좋은 보람을 얻도록 빌면서, 우리는 신앙안에 일치된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의 뜻과 50주년 큰일에 임하는 새로운 용기를 갖자.

성인병 치료의 신약 영지
※ 직접 참나무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읍니다
함열 영지 농장
함열읍 와리 동지부락
(마을회관 뒤)
전화(0653) 6—1107
한 상 현(요셉)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제 일 안 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여러분께 염가봉사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등 앞)
2-0102 · 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 종 환 치 과 의 원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옆 신라당 건너편
신라당 ○ 팔달로← →오거리
○ 주택은행 ↓대학병원 ○ 조흥은행
김종환치과의원

마 안 과 의 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마 기 환
안과전문의
한남회(비리시타)
☎ 83-2203
(오거리 · 한일은행건너편 명동피부과옆 2층)
국민은행신축 · 거북제과 · 한일은행
←전동성당 · 팔달로 · 오거리 중앙성당→
주택은행 · 마안과 · 시청→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 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시다
2. 세대별 신자카드 : 각구역장님께서는 해당구역에 빠진 가정이 없도록 각세대의 신자카드를 작성하여 30일까지 본당에 제출하세요
3. 부녀회 월례회 : 24일 어머니미사 후
4. 유아 및 어린이 영세식 : 28일 오후 2시30분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5. 구역봉사자 모임 : 26일 저녁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구역장 임명 : 중노2가 1구역장—김옥남
우아3구역장—전영희, 인후1구역장—진막내,
인후6구역장—김정임 자매님들이 수고하시겠읍니다
7. 공소 순회미사 : 28일 저녁 8시, 신교리공소
8. 교무금 납부의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9. 금주전례 : 해설—박종구, 독서봉헌—임철환 부부
신자기도—김진희 부부, 촛불봉헌—국용남 부부
차주전례 : 해설—김완준, 독서봉헌—배기창 부부
신자기도—윤석언 부부, 촛불봉헌—손소부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47,555원 교무금 : 305,500원
신축금 : 2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수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사목회 : 오늘 오후 8시30분
2. 사목회 6월 월례회 : 29일(다음주일) 오후 8시30분
3. 재속형제회(삼회) : 오늘 오후 2시
4. 반회장 회의 : 26일 오전 10시
5. 사목회 임원교육 : 22일 오후 2시부터
선교·여성·청소년분과
6. 교황주일 : 29일, 2차헌금 있음
7. 주일학교 :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미사 4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8. 대학생회 : 매주일 오후 6시
대학생들 빠짐없이 참석바람
9. 축! 결혼 : 29일 12시, 복자성당
신랑—고성광(맏구)군, 신부—최순옥양
10. 금주전례 : 해설—김경자, 독서—①강기연 ②안철조
봉헌—안운정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강준희 ②강주호
봉헌—박상기씨 부부
독서와 봉헌하시는 분 정장을 하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266,470원 교무금 : 446,4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1. 유아영세식·우정의날 : 25일 저녁
※ 유아영세 대상자는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2. 본당 공사헌금 : 구역장님 배정표대로 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3. 다음주일은 교황주일 : 29일
특별 2차헌금 있읍니다
4. 분과위원장 교육 : 오늘 오후 2시, 가톨릭센타에서
선교·여성·청소년분과교육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116,14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꾸리아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26일 오후 8시
3. 2성당 신축건립을 위한 국수판매를 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바람
4. 첫영성체 : 2성당 첫영성체 교리자—21일 어린이미사 때 세례식과 첫고백이 있고, 22일 2성당 오후 2시 미사중에 첫영성체 있음
※ 본당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가 24일부터 오후 5시에 있음
5. 예비자교리 : 학생—토요일·일요일 오후 6시
일반—화 오후 7시30분, 주일 공식미사 후
6. 교무금 납부 :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 바람
2성당은 주일미사때 받고 있읍니다
7. 공소미사 : 29일
마음리—오후 3시, 광곡리—오후 5시
8. 사제양성 후원금 신입자 :
1구좌—익명·윤정순·김봉환, 3구좌—김낙균
9. 금주봉헌 : 본당—진성복 부부, 2성당—박찬주 부부
차주봉헌 : 본당—강남준 부부, 2성당—오상팔 부부
10. 차주전례
본당 : 해설—남정호, 독서—①강남준 ②한형수
2성당 : 해설—문치구, 독서—①박형식 ②정형석

□ 지난주 봉헌금 : 본당—280,680원, 2성당—110,160원
계—390,840원 교무금 : 606,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미사시간 안내
평일 : 오전 5시30분, 오후 7시30분
주일 : 오전—5시30분, 8시30분, 10시
오후—3시, 5시, 7시30분

※ 예비자교리반 안내
금요일 : 오후 8시, 토요일 : 오후 5시(중·고생)
일요일 : 오전 11시

1. 성마리아·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L·M간부 전원 참석바랍니다
2. 본당사목회 분과위원장 교육안내
22일—선교분과·여성분과·청소년분과
3. 꾸르실료 올뜨레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르실리스타 전원 참석바랍니다

※ 다음주일은 50주년 특별헌금 주일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읍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013,660원 교무금 : 295,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종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성령쇄신피정
①기간 : 24일~27일 오전 10시~12시30분
②지도 : 전주교구 성령봉사회
2. 예비신자 특별교리 : ①대상 : 7월 5일 영세희망자
②기간 : 30일~7월 4일 저녁 8시30분
3. 예수 성심의밤 : 28일 저녁 8시30분
4. 은혜의밤(철야기도) : 27일 밤 11시
5. 감사 : 글라라회—20만원
6. 모임 : 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7. 축! 결혼 : 29일 12시, 효자동성당
신랑—오정수(베네딕또), 신부—정귀니(도미니카)

□ 지난주 봉헌금 : 524,850원 교무금 : 453,000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3—7440